

[법원의 선거중지 판결에 대한 기호2번 장현일 선본 성명서]

법원의 결정을 '통합투개표' 도입을 통한 공정선거 실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 파행으로 치닫던 kt노조선거가 법원의 철퇴를 맞았다!

회사의 개입과 투개표소 쪼개기 등의 꼼수로 인해 파행으로 치닫던 kt노동조합 선거가 결국 법원의 결정으로 중지되었다. 선거 초반부터 조합원들에게 1번 후보만 추천하라고 억박지른 회사와, 공고가 붙기도 전부터 추천서를 갖고 다니며 100% 서명을 받고 다닌 노조 지부장들의 부정행위가 법원에 의하여 철퇴를 맞은 것이다. 이런 탈법적인 과정 속에 조합원들의 추천을 받지 못하여 후보등록에 실패한 조합원들이 선거중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규약에 의하여 5% 이내로 되어 있는 추천 한도를 뛰어 넘는 싹쓸이 추천을 지적하고, 입후보자 등록공고가 생략된 점을 절차상의 결정적인 하자로 문제 삼았다. 조합원총회가 당초 예정보다 음모적으로 앞당겨져 14일에 급작스레 공고되면서 발생한 중대한 오류였다.

○ 조합원들의 안도의 목소리와 빗발치는 통합개표 요구

선거중지결정을 전해 들은 조합원들은 안도의 목소리와 함께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장현일 선대본으로 전해 왔다. 조합원들은 추천서명부터 마음 고생했고 투표일을 앞두고 1번을 지지하라는 관리자들의 협박에 시달리면서도 민주노조에 대한 염원을 버리지 않았지만, 사실상 관제선거로 치러지는 선거가 조합원의 민의를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투표소가 209개나 늘어나 698개로 확정되면서 드러난 사실상의 공개투표 음모에 치를 떨었던 조합원들은 이번 선거중지 결정을 계기로 진정한 조합원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다시 준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기존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하여 공정선거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라!

이러한 조합원들의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정당성을 상실한 기존 집행부와 선관위는 즉각 사퇴하여야 한다. 그리고 1번 후보진영을 제외한 3후보 측에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중립적인 선관위를 구성하여 자주적, 민주적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개악된 규약개정을 원상회복하고, 통합 투개표 제도를 도입하여 조합원들의 공정선거를 위한 열망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회사의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노조선거에 대한 엄정중립을 다짐 받아야 할 것이다.

장현일 선대본부는 이러한 내용의 관철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투쟁할 것이다.